

# 정서적 의사결정\*

## Emotional Decision-Making

이 수 정\*\*  
Soo Jung Le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처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정서의 우선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되었던 Murphy와 Zajonc(1993)의 실험 패러다임을 응용하여 비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정서점화효과와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정서점화효과를 비교하였다. 정서적 경험에 있어서의 차별화를 조작하기 위하여서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사용되었던 표정 사진 대신 사건사진을 점화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모두 식역 이하 수준에서 점화자극을 제시하였던 경우 Murphy와 Zajonc(1993)이 발견한 점화자극으로 인한 동화의 효과가 나타났다. 원 연구자들에 따르자면 점화자극에 대한 자각은 점화자극으로 인한 동화효과를 상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극제시시간을 정서적 각성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길게 한 조건에서는 사건사진(실험 2)만이 정서적 동화효과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들이 지니는 정서처리의 과정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연구의 목적

현 연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정서의 처리과정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정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증적인 증거들과 이론들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공통적으로 합의하였다. 우선 정서관련 자극에 대한 파악은 상당히 자동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Murphy와 Zajonc(1993)는 자각하 수준에서도 자극의 정서가 처리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정서의 입력단계에서 일어나는 정서가에 대한 우선적인 파악은 상당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쳐 정서가 출력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극의 애초 정서가에 대한 자동적인 처리특성은 상당히 변형되는데, 이는 여러가지 인지적인 세분화과정과 통제과정의 개입으로 정서적인 자극의 정보가 변형되기 때문이

라고 한다(Shaver, Schwartz, Kirson, & O'Conner, 1987).

정서의 처리과정 중 또 한가지 특별한 점은 감정의 영향력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즉 확산적이라는 것이다(Murphy & Zajonc, 1993). 입력과 출력 루트가 상당히 국소적인 인지과정에 비해 정서처리의 특성은 바로 방대한 확산성에 있다고 한다. 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점화의 패러다임을 동원하여 정서처리의 이와 같은 특성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현 연구에서는 정서점화의 패러다임으로 기본적으로 Murphy와 Zajonc(1993)이 개발하였던 것을 사용할 것인데, 이들의 정서적 점화패러다임의 특징은 점화자극으로 표정사진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표정사진을 이용한 정서점화에 있어서 점화자극이 식역하 수준으로 매우 짧게 주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만이 정서자극으로 인한 동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정서자극의 제시사실을 의식하게 되면 이런 동화효과가 사라짐을 발견하였다. 현 연구에서는 이들이 발견하였던 의식적인 그리고 비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정서적 점화효과가 얼굴표정 대신 유쾌, 또는

\* 본 연구는 경기대학교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E-mail: suejung@kuic.kyonggi.ac.kr

불쾌한 사건의 사진들을 점화자극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재검되는지를 확인하여 볼 것이다. 나아가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을 길게 하여 충분한 정서적인 각성이 유발되게 할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화의 양식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애당초 정서적인 점화자극으로 얼굴표정 대신 사건사진들을 사용하였던 목적은 이들 정서적인 자극단서들에 대한 지각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지각자들은 얼굴표정에 대해서보다는 정서적인 사건의 사진들에 대하여 더 심한 각성상태를 일으켰으며 이런 현상은 자극의 제시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1999).

이런 차별적인 정서의 경험적 측면에 대해 Izard(1992)는 정서의 구조가 정서의 신경학적인 단면인 정서상태(emotional state), 행동학적인 단면인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 그리고 인지적인 단면인 정서경험(emotional experience),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명백하게 정서상태와 정서경험, 정서표현과 정서경험은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정서경험을 위해서는 내적으로 일어나는(그것이 신경생리학적이든 의식적인 인식이든) 경험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의문은 타인의 표정을 점화자극으로 사용한 경우와 강력한 정서경험이 동반되는 사건사진들을 정서점화로 이용하는 경우, 정서점화의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점화의 영향력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얼굴표정만을 정서적인 점화자극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서가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가 일단 이루어지겠지만 '경험되는 정서'의 측면에서 보자면,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정서경험상의 변화는 정서적인 사건에 비해 그리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추론

이 사실이라면 정서적 경험이 배제된 단순한 정서적인 단서만으로는 그 자극이 아무리 오래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력이 전기적 파장처럼 후속적인 정보처리에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내적인 정서경험이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점화효과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인 바, 현 연구는 이렇게 차별적인 점화의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정서경험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여 볼 작정이다.

## 실험 1

정서적인 점화자극으로 얼굴표정의 사진들을 이용하였다. 일단 실험 1의 목적은 Murphy와 Zajonc(1993)의 실험결과를 재검하고 나아가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의 경과에 따라 얼굴표정으로 인한 점화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가설 1: 비의식적인 점서점화조건(10msec)에서는 점화자극의 정서가로 인한 동화의 효과가 재검될 것이다.

가설 2: 점화자극의 자각이 있는 1000msec 조건에서는 점화자극의 정서가로 인한 동화의 효과가 절감될 것이다.

가설 3: 표정점화가 충분히 길게 주어지더라도(5000msec) 표정의 정서가로 인한 동화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연구방법

피험자. 연세대학교에서 98년도 가을학기 동안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라는 심리학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59명의 피험자들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중에서 21명은 비의식적인 점화조건에 20명은 의식적인 점화조건 중 1000msec 동안 점화자극이 제시되는 조건에, 그리고 18명은 5000msec 동안 점화자극이 제시되는 조건에 각기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실험자극 및 절차. 정서적인 점화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점화패러다임은 세 가지 자극으로 구성하였다. 일단 정서를 점화시키는 표정사진(그림 1)들로 구성된 점화자극, 이 점화자극에 대한 차폐자극, 그리고 호감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 낯선 글자인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판단과제의 세 가지였다. 이때 점화자극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표정의 사진들이 각각 10장씩 그리고 무정서, 중립지극은 'AAA'가 준비되었다. 차폐자극으로는 두 장의 흑백 바둑판 그림이 사용되었다. 이때 차폐자극을 사용하였던 이유는 비의식적 점화조건에서 정서점화로 인한 잔상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두 장의 차폐자극은 점화자극이 제시되기 전에 각기 10번씩 교대로 제시되었다. 마지막 과제평정을 위해서는 30장의 히브리어의 모양에 대한 호감도 판단과제를 사용하였다. 모든 자극은 가로 세로 12cm 정도의 크기로 투사되도록 편집하였다.

중속측정치로는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판단, 그리고 호감도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반응시간이 측정되었다. 이때 호감도 판단은 각 히브리어의 모양에 대해 '좋다', '싫다'를 결정하면 되었고 반응시간은 히브리어의 제시가 끝났을 때부터 호감도 판단을 내릴 때까지의 시간이었다.

#### 연구결과

전체 실험조건은 3(10msec/ 1000msec/ 5000msec) \* 3(긍정적인 점화자극, 부정적인 점화자극, 중립적인 점화자극)이었다. 이 중 첫 번째 변수는 피험자간 변수였으며 두 번째 변수는 피험자내 변수였다.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평정치는 긍정적인 점화 10시행, 부정적인 점화 10시행, 그리고 중립적인 점화 10시행에서의 각 개개 판단이 합산되어 산출되었다. 각 조건에서의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평정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점화조건에 따른 호감도 평균 상에서의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았

표 1. 표정점화 후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평균 호감도 평정치

점화자극의 정서가	10msec 평정평균	1000msec 평정평균	5000msec 평정평균
즐거움	7.17(1.57)	5.86(2.18)	5.83(1.65)
중립적인	4.84(2.25)	4.31(2.23)	5.00(1.82)
괴로운	3.92(2.58)	4.63(1.83)	5.22(2.03)

괄호 안 :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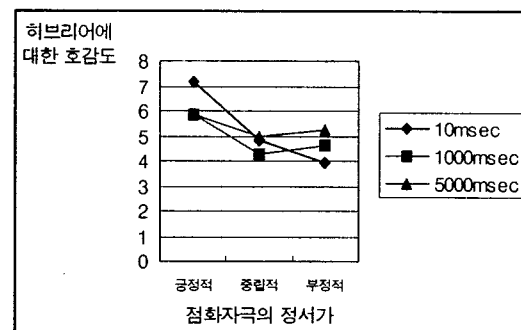


그림 1. 표정점화가 히브리어 문자 평정에 미치는 영향

다, Box's M = 11.59,  $F(12, \infty) = .89, p \leq .554$ . 변량분석 결과, 점화자극의 정서가로 인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118) = 13.30, p < .001$ . 이에 대한  $\eta^2$ 는 .18 이었고 검증력은 1.00이었다. 주효과에 사후 직교대비 결과 긍정적인 정서점화 후에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평정이 중립적인 점화조건에서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4, 112) = 22.81, p < .001$ . 그러나 중립적인 점화조건과 부정적인 점화조건에서의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평정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9) = .14, p \leq .712$ .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으로 인한 주효과는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평정치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F(2, 59) = 1.11, p \leq .340$ .

표 2. 히브리어에 대한 반응시간 상에서의 표정점화로 인한 영향

점화자극의 정서가	10msec 평정평균	1000msec 평정평균	5000msec 평정평균
즐거움	1.49(.57)	1.25(.58)	1.90(.59)
중립적인	1.52(.55)	1.38(.66)	1.92(.62)
괴로운	1.62(.72)	1.31(.64)	1.85(.65)

괄호 안 : 표준편차

점화자극의 정서와 점화자극에 대한 의식/비의식 처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 118) = 4.61, p \leq .002$ . 이런 상호작용의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점화 수준 별로 각기 정서점화에 대한 단순 주효과가 탐색되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처럼 얼굴표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비의식적 점화조건에서만 정서가로 인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48) = 23.03, p < .001$ . 이 결과는 실험 1의 결과를 재검하여 준다. 1000msec 동안 점화자극을 자각할 수 있게 해 준 조건에서는 표정의 정서가가 후속적인 히브리어 평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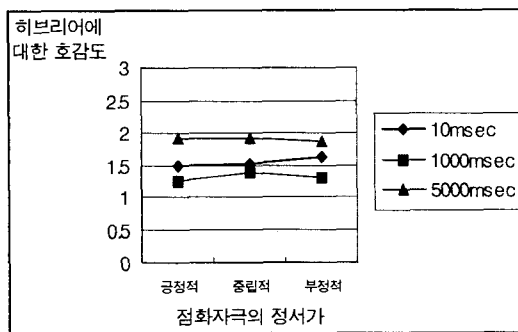


그림 2. 표정점화가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

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36) = 2.98, p \leq .150$ . 표정점화를 5000msec 동안 충분히 길게 준 경우에도 역시 점화자극으로 인한 영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34) = 1.44, p \leq .250$ .

사후적교대비 결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의식적 점화조건인 경우에만 부정적인 정서점화 후에 제시된 히브리어 평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점화조건 후의 경우에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4) = 46.12, p < .001$ . 각 정서가 조건상에서 점화자극의 제시시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05의  $\alpha$ 수준 상에서 어떤 평균간의 차이도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변량분석 결과는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으로 인한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을 뿐,  $F(2, 59) = 4.48, p \leq .015$ , 점화자극의 정서가가,  $F(2, 118) = .99, p \leq .374$  이 둘간의 상호작용이,  $F(4, 118) = 1.20, p \leq .314$ , 모두 통계적 영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하였다(그림 2).

## 실험 2

정서적 점화자극으로 유쾌한 또는 불쾌한 사건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 실험 2에서는 사건사진의 제시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서적 점화자극의 효과가 실험 1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를 탐색하여 보았다.

가설 1: 정서적인 점화에 대한 자각이 없는 조건에서는 점화자극의 정서가로 인한 동화의 효과가 후속적인 평정과제 상에서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정서적인 점화자극의 제시사실에 대한 자각만이 겨우 있는 조건에서는 점화자극으로 인한 동화의 효과가 후속적인 평정과제 상에서 상쇄될 것이다.

가설 3: 충분히 길게 정서적인 점화자극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정서적인 각성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점화자극의 정서가로 인한 동화효과가 점화자극과는 관련이 없는 판단과정에도 확산될 것이다.

### 연구방법

피험자. 연세대학교에서 98년도 가을학기 동안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라는 심리학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59명의 피험자들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에게는 실험에 참가한 조건으로 학기말 성적에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피험자들 중에서 21명은 비의식적인 점화조건에 20명은 의식적인 점화조건 중 1000msec 동안 점화자극이 제시되는 조건에, 그리고 18명은 5000msec 동안 점화자극이 제시되는 조건에 각기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실험자극 및 절차. 정서점화자극으로 사진사진들을 사용한 점 이외에는 모든 절차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 연구결과

실험조건은 3(10msec/ 1000msec/ 5000msec) \* 3(긍정적인 점화자극, 부정적인 점화자극, 중립적인 점화자극)이었다. 이 중 첫 번째 변수는 피험자간 변수였으며 두 번째 변수는 피험자내 변수였다.

변량분석 결과, 점화사건의 제시시간과,  $F(2, 56) = 5.28, p \leq .008$ , 점화자극의 정서가에 따른 주효과가,  $F(2, 112) = 38.90, p < .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각에 대한  $\eta^2$ 는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으로 인한 주효과의 경우 .16이었으며 점화자극의 정서가의 경우 .41이었다. 이들에 대한 검증력은 전자의 경우 .82, 후자의 경우 1.00이었다. 각 점화자극 간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Box's M = 19.63,  $F(12, \infty) = 1.51, p \leq .113$ , 나타났기에 각 변수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서가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직교대비는 긍정적인 정서점화 후, 중립적인 점화조건에서보다 히브리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56) = 23.69, p < .001$ , 부정적인 정서점화 후에 주어진

표 3. 사건점화 후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평균 호감도 평정치

점화자극의 정서가	10msec 평정평균	1000msec 평정평균	5000msec 평정평균
즐거움	5.48(1.33)	5.14(1.86)	6.83(1.34)
중립적인	4.43(1.57)	4.60(1.93)	4.78(1.22)
괴로운	2.29(1.23)	5.72(2.23)	2.06(1.70)

괄호 안: 표준편차

히브리어에 대해 중립적인 점화조건 후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6) = 20.12, p < .001$ . 각 정서점화 후의 히브리어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긍정적인 점화조건 시 5.82(SE = .20), 중립적인 정서점화 후 4.60(SE = .21), 부정적인 정서점화 후 3.35(SE = .23)로 산출되었다.

점화자극의 정서가와 점화자극에 대한 의식/비의식 처치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F(4, 112) = 17.59, p \leq .001$ . 이에 대한  $\eta^2$ 는 .41이었고 검증력은 1.00이었다. 이런 상호작용의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점화수준 별로 각기 정서점화에 대한 단순 주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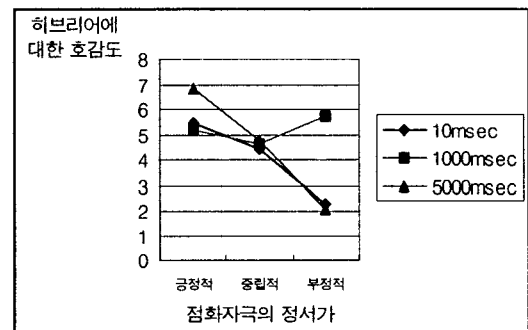


그림 3. 사건점화가 히브리어 문자 평정에 미치는 영향

과가 탐색되었다. 그 결과 그림 3에서처럼 점화사건의 제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비의식적 점화조건에서 정서가로 인

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40) = 26.58, p < .001$ . 1000msec 동안 점화자극을 자각할 수 있게 해 준 조건에서는 실험 2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사진의 정서가로 인한 영향이 후속적인 히브리어 평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F(2, 38) = 2.29, p \leq .115$ . 그러나 사건 점화를 5000msec 동안 충분히 길게 준 경우에는 히브리어 평정에서 다시 점화자극으로 인한 동화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34) = 51.28, p < .001$ .

단순 주효과에 대한 사후적교대비 결과, 비의식적 점화조건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점화 후에 제시된 히브리어에 대하여, 중립적인 점화조건 후에 제시되었던 히브리어에 대해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0) = 25.19, p < .001$ . 더불어 긍정적인 정서점화 조건에서의 히브리어의 모양에 대한 호감도가 중립적인 정서점화 조건에서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1, 20) = 4.57, p \leq .045$ . 점화자극에 따른 호감도 평균 상의 이런 양식은 점화자극이 5초 동안 충분히 길게 주어진 조건에서 역시 나타났는 바, 부정적인 정서점화 후의 히브리어에 대해 피험자들은 훨씬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7) = 30.81, p < .001$ . 또한 긍정적인 정서점화 후에 제시된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정서점화 조건에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7) = 28.77, p < .001$ .

이런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즉 정서점화 자극을 10msec로 아주 짧게 제시한 경우와 5000msec로 아주 길게 제시한 경우의 후속적인 히브리어 평정에 있어서의 호오도의 평균이 매우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사건사진이 점화자극으로 제시되었던 경우 제시시간에 따른 호감도 상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56) = 26.84, p < .001$ . 자극의 제시 사실을 겨우 자각할 수 있었던 1000msec 조건에서만

표 4. 사건점화 후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호감도 판단의 평균 반응시간

점화자극의 정서가	10msec 평정평균	1000msec 평정평균	5000msec 평정평균
유쾌한	1.71(.62)	1.60(.43)	2.04(.61)
중립적인	1.78(.77)	1.60(.50)	2.46(.76)
불쾌한	1.71(.64)	1.63(.58)	2.21(.50)

괄호 안 : 표준편차

점화자극의 영향이 잠시 사라졌을 뿐, 정서점화를 충분히 길게 준 조건에서는 다시 점화자극으로 인한 영향이 무관한 과제에 대한 호감도 평정 상에서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Tukey검증 결과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이 10msec, Tukey HSD = 3.44,  $p < .001$ , 그리고 5000msec이었던 경우에, Tukey HSD = 3.67,  $p < .001$ , 호감도의 평정이 1000msec로 점화자극을 제시했던 조건에서보다 히브리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정과제 상에서 드러났던 사건점화로 인한 영향은 반응시간 상에서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자극의 제시가 끝난 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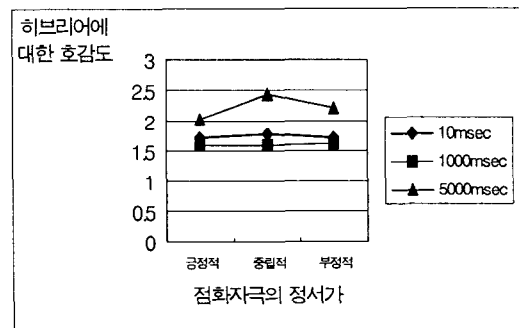


그림 4. 사건점화가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

터 호감도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점화자극의 정서가,  $F(2, 112) = 5.71, p \leq .004$ , 사

건의 제시시간,  $F(2, 56) = 6.22, p \leq .004$ ,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112) = 3.77, p \leq .007$  모두가 통계적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각에 대한  $\eta^2$ 는 점화자극의 정서가로 인한 주효과의 경우 .09, 제시시간으로 인한 주효과의 경우 .18이었으며,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각에 대한 검증력은 .86, .88, .88이었다. 실험 3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점화자극이 정서가를 포함하고 있을 때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은 빨라졌는 바, 긍정적인 점화 후,  $F(1, 56) = 11.31, p < .001$ , 그리고 부정적인 점화 후,  $F(1, 56) = 3.01, p \leq .088$ , 모두에서 중립적인 점화조건의 경우보다 더 빠르게 대상에 대한 호감도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으로 인한 영향은 그 기간이 길수록 호감도 판정도 평균적으로 늦어짐을 보여 주었다. 점화자극이 5초 동안 제시되었던 경우 평균 호감도 판단시간은 2.23(SE = .14) 10msec 점화조건의 평균 호감도 판단시간은 1.73(SE = .13) 1000msec 점화조건의 평균 호감도 판단시간은 1.61(SE = .13)이었다.

단순 주효과 분석은 특히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이 가장 긴 경우에 점화자극의 정서가로 인한 반응시간 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34) = 9.54, p < .001$ . 긍정적인 정서점화,  $F(1, 17) = 15.86, p < .001$ , 부정적인 정서점화,  $F(1, 17) = 4.71, p \leq .045$ , 후에 이루어지는 호감도 판정이 중립적인 점화조건에서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5초 점화조건에서의 조건 당 호감도 평정시간은 긍정적 정서점화 조건에서 2.04(SE = .14), 중립적인 점화조건에서 2.46(SE = .18), 부정적인 정서점화 조건에서 2.21(SE = .12)이었다. Tukey검증 결과, 점화자극의 노출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반응시간 상의 차이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점화조건에서만 나타났을 뿐 긍정적인 점화조건 상에서는 산출되지 않았다. 두 가지

점화조건 모두에서 점화자극의 노출시간으로 인한 평균간의 차이검증은 .05 수준에서 5초의 점화조건이 나머지 두 점화제시시간의 경우보다 더 느렸다. 점화자극의 제시가 비의식적 수준으로 주어졌던 경우와,  $F(2, 40) = .80, p \leq .438$ , 1초 동안 허용되었던 경우에,  $F(2, 38) = .09, p \leq .918$ , 있어서는 정서가로 인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논의

실험 2는 정서의 처리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여 준다. 얼굴을 점화자극으로 사용하였던 경우(실험 1)에는 정서가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가 정서의 유발원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경우에만 무관한 과제에로 확산되었으나, 일단 점화의 원천에 대한 자각을 주면(1000msec, 5000msec), 점화자극으로 인한 영향이 후속적인 평정과제 상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표정과 달리 사진의 내용이 정서경험을 충분히 강력하게 유발하는 사건사진들의 경우에는 비의식 수준으로 점화자극을 제시하였던 경우와 오랫동안 점화를 시킨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부정적인 사건사진들의 정서적인 내용으로 인한 영향이 점화자극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히브리어에 대한 호감도 평정에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점화자극의 자각이 정서의 확산적인 효과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는 Murphy와 Zajonc(1993)의 보고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이며, 나아가 자신의 기분 상태에 대한 정확한 귀인이 이전의 기분으로 인한 후속적인 판단과정의 왜곡을 사라지게 한다는 여러 연구들(Schwarz & Clore, 1983; Jacoby, Kelley, Brown & Jasechko, 1989)의 결과와도 상반되는 발견이다. 이 단계에서 추론하여 볼 수 있는 점은 매우 강력한 정서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천을 뻔히 알면서도 그로 인한 영향을 상당히 피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아침 등교 길에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의 시체

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이 경우 기분이 하루종일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도 식사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을 것이다. 즉 내 기분이 왜 이런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어찌지 못한다. 이런 기분의 변화에 대한 상식적인 원리로 실험 2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있어 보인다. 굳이 이론적인 틀을 적용시키자면, 비의식적인 점화효과에 잘 맞는 정서적 네트워크 모델이, 강력한 정서로 인한 동화현상 역시 정보로서의 정서이론보다 더 잘 설명하여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과 2의 결과는 정서정보라고 해서 그 처리의 단계가 확실적인 하나의 정보처리 과정이 아님을 보여 준다. 실험 2에서 정서적 사건을 점화자극으로 이용한 경우에 비의식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던 정서점화의 효과가 강력한 정서경험을 야기하는 5000msec 조건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은 정서의 다 단계적인 처리에 대한 단편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준다. 즉 실험 1의 결과 아무리 점화자극이 일차적으로 정서가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부적인 정서경험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적인 판단과정에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험 2에서처럼 상당히 강력한 정서경험이 동반되는 경우(5000msec)에는 정서적 촉발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적인 영향력이 주변의 정보처리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호감도 평정시 두드러졌던 사건점화와 표정점화의 차별적인 처리과정 상의 특징은 호감도 평정을 내리기까지 소요되는 반응시간 상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점화자극의 정서가와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건점화의 경우 확인하였지만 표정점화 후의 히브리어에 대한 반응시간 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들은 정서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

론들의 상대적인 설득력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하여 준다. 즉 정서적 자극에 대한 초기의 처리과정은 상당히 빠르지만 자극포착의 정확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이란 점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여 후속과정으로의 오염을 완전히 제지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정서적 단서가 입력이 되고 나면 그로 인한 영향은 자극의 제시상황이나 지각자들의 원인귀인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실험 2에서와 같이 정서적인 자극이 충분한 정서경험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서가로 인한 동화의 효과가 주변의 정보처리 루트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만, 정서적인 단서가 미세하고 충분한 내적 경험이 없는 경우(실험 1)에는 정서가로 인한 점화의 디폴트 양식은 후속적인 주의과정의 개입으로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Berkowitz (1993)나 Shaver등(1987)도 이와 같은 정서 경험에 있어서의 세분화과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점은 Hansen과 Hansen(1994), 그리고 Rogers와 Revelle (1998)이 발견하였던 정서적 정보에 대한 상대적인 민감성이 실험 2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충분한 내적 각성이 동반되는 것으로 확인된 5000msec라는 긴 시간 동안 점화자극이 제시되었던 경우에는 중립적인 점화 후보다 정서적인 점화 후에 호감도 평정시간이 더 빨라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정서적인 정보에 비해 정서적인 경험이 동반되는 처리과정의 경우 그 처리의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사실을 부가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5000msec로 점화자극이 길게 제시되었던 조건에서의 점화자극으로 인한 반응시간 상의 차별적인 영향력은 비의식적 점화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시간 상에서 나타난 이런 결과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의 이론적인 모델들 상에서는 적절한 설명의 틀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한가지 사료되는 점은 정서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나름



대로 구별이 가능한 몇 가지 독립적인 처리의 단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해리현상이라고도 불리울 이런 가정은 후속적인 연구들에서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수정 (1999). 정서정보에 대한 의식적/비의식적 처리 : 접화패러다임에서의 정서 우선성 효과,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erkowitz(1993). Pain and aggression: Some findings and implic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17, 277-293.
- Hansen, C. H., & Hansen, R. D. (1994). Automatic emotion: attention and facial efference. In P. M. Niedenthal & S. Kitayama (eds.), *The Heart's Eye: Emotional Influences in Perception and Attention* (pp. 88-113). New York: Academic Press.
- Izard, C. E. (1992). Basic emotions, relations among emotions, and emotion-cognition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99, 561-565.
- Jacoby, L. L., Kelley, C., Brown, J., & Jasechko, J. (1989). Becoming famous overnight: Limits on the ability to avoid unconscious influences of the p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26-338.
- Murphy, S. T., & Zajonc, R. B. (1993). Affect, cognition, and awareness: Affective priming with suboptimal and optimal stimul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23-739.
- Rogers, G. M., & Revelle, W. (1998). Personality, mood and evaluation of affective and neutral word pai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592-1605.
- Schwarz, N., &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e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3-523.